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결인가 등록 190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2253호

| | |
|------------------------------|-------------|
| 발행인 | 박필수 |
| 편집인 | 김준영 |
| 편집장 | 이성환 |
| 외대신문사 (☎31962-7128/965-7001) | |
| 외대학보 (☎31962-7048/965-7001) | |
| 130-791 서울시 중대문로 270-1 | |
| 149-791 경기도 용인군 두문면 향산리 | |
| 인쇄인 | 한국외대신문사 이규형 |

제 499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9월 20일 (화요일)

학민, 성실한 약속이행이 관건

서울, 학민투쟁 일단락 학교측과 총36개 조항 합의
교문이전·스탠드건립·도서관좌석 확충등 약속



韓國外國語大學

○주최(사) 한국외대신문사
○주최(사) 한국외대신문사
○주최(사) 한국외대신문사

지난 9월 7일(수) 학교측과 1차교섭을 시작으로 수업 거부까지 이르렀던 서울캠퍼스의 학민투쟁이 14일(수) 박필수총장이 합심성중학과의 교섭과 36개항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학민투쟁추진위원회」(이하 학민투위)는 재단, 복지, 경영, 시설확충 등에 대한 「제시」를 발간하고 이들을 사정에 대해 학교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9월 7일 1차교섭이 결렬되고 6차례 걸친 교섭중에도 교문이전·도서관 좌석확충 등 일부

조항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계속적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9월 11일(수) 학교측이 대운동장의 스탠드좌석 확충이 되면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수락할 것이라던 일주일동안 지속된 학민투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합의된 사항을 보면 ▲교문 이전 ▲대운동장의 스탠드좌석 30여 개 확충 ▲도서관에 「외대일」 편집실 ▲미네르바도서관 건물 등기 회의실에서 명신인 약속 조항은 작년과 달리 이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한 7천만원의 장학금중 3천만원과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던 2천4백71만원은 지난 19일(월) 서울·용인캠퍼스 총1백90명의 학생에게 각 28만원씩 지급되었다.

이번 학민투쟁후부를 총괄 주도한 복지위원장 이희진(서양·영어4)은 「재단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약속조항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며 「이번 학민의 결과 역시 학교측이 약속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가에 따라 판별

분단올림픽 반대시위 잇달아

“현 올림픽은 미제의 영구분단 고착음모”

올림픽 개막식을 며칠 앞두고 지난 14일(수)과 15일(목) 본교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에서 분단올림픽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캠퍼스 운동장에서는 「서울 올림픽을 반대하는 민중생각연대 및 독재연장본부를 위한 한국외대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2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투쟁(상경·주거4)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분단올림픽, 반민중적 올림픽의 실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평화구현위원회, 민중생각연대, 평화정착본부를 중심으로 「분단올림픽을 반대하는 시위」가 추진됐다.

한편, 「분단·독재올림픽을 반대하는 평화·공동체위원회」가 결의문을 「서울·성동」 신하 「가주·민주·평화정착 특별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2시 경향대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분단·독재올림픽을 반대하는 평화·공동체위원회」 결의문은 「가주·민주·평화정착 특별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2시 경향대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살인죄투탄 규탄대회

12일부터 아주대등에서 연일 개최

「미국학생 신우성군 살인죄투탄 규탄대회」가 지난 9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본교생 2백50여명을 포함 연인원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주대와 신구전대등에서 연일 개최되었다.

지난 16일(금) 본교생 60여명을 비롯한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구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초청인사로 참석한 국민환목사(민통연 회장)는 「평화구현을 위한 전대미문의 약법을 만들어놓고 해당구내에서 살인적인 죄투탄을 한 것은 평화적 저항을 인정하는 것의 특례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신우성군이 외딴 5경비의 조사와 전우환, 이순자 구속 수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미뤄질 수 없다고 외쳤다.



○14일(수) 「인리연구회」 집회와 관련해 학생들이 통일교 학생들을 교문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통일, 원리연구회 제명 보류

저지시위로 14일 통일교집회 무산

지난 14일(수) 오후 5시 「인리연구회」 주최로 열린 예정이던 통일교 집회가 학생들의 반대시위로 무산됐으며, 이와관련 통일교집회와는 원리연구회의 제명을 19일(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14일 통일교에서 비상학생총회에 참여한 7백여명의 학생들은 「사소한 형벌 통일교를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통일교집회장인 대학원 6104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10여명의 「인리연구회」 학생들을 교문밖으로 몰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인리연구회」 학생들과 일부 충돌이 있기도 했다.

또한 15일(목) 오후 6시에 성화봉송을 저지하기 위해 가교구단집회를 갖고 학생들의 주진출을 시도, 이를 막는 진성 2시간동안들과 학원비를 얻기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외대」지문 학생조집

지난 14일(수) 오후 5시 「인리연구회」 주최로 열린 예정이던 통일교 집회가 학생들의 반대시위로 무산됐으며, 이와관련 통일교집회와는 원리연구회의 제명을 19일(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14일 통일교에서 비상학생총회에 참여한 7백여명의 학생들은 「사소한 형벌 통일교를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통일교집회장인 대학원 6104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10여명의 「인리연구회」 학생들을 교문밖으로 몰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인리연구회」 학생들과 일부 충돌이 있기도 했다.

또한 15일(목) 오후 6시에 성화봉송을 저지하기 위해 가교구단집회를 갖고 학생들의 주진출을 시도, 이를 막는 진성 2시간동안들과 학원비를 얻기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제가

어와 안 망한 나라라고 싶을 말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그릇의 민중들이 벌는 필박은 이제야말로 우리의 치욕적인 결말을 통해서 이를 깨달고 있어야 하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할 것이라 부수히 다짐했다.

가 사회일각에서 조급한 거론되고 있다. 「주동풍의 권리규정」을 명시한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경」이 되고자 했을지 모르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러한 불평등 협정은 없었다. 미국이라는 기반이 없는 나라의 주권(君主), 85년 1월 5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말한다. 당시 「한일협정」과 관련된 것이 강도로 표현됐던 것이다.

주인 행세를 하려는 자는 이미 천구로, 손님도 아니다. 주인이 버리지 있음에도 남의 집에서 설치하는 자는 「양상권자」라는 칭호를 붙여주기가 어렵다.

▲「한국은 이 이상 민족을 만들 것인가. (중략) 국을 내렸기 위해서 강도를 불러들이지 말고. 그리고 85년 1월 5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말한다. 당시 「한일협정」과 관련된 것이 강도로 표현됐던 것이다.

주객전도(主客轉倒)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 반도의 미덕으로 도덕이 세워져 있다.

▲「남의 어머니들이 양키의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우도 한가운데에는 백만원이 달하는 외국인이 존재한다. 윤희의 경비를 위해 세계 최대의 학원학교가 세워지거나 동해바다를 가로지르고, 국공립 문화재단이 유일한 장학금을 통해 아무 봉제도 없이 반출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일본은 강도로 표현하며 백화하면서, 미국은 단순한 도덕으로 명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또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미국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백보십 「경」이라는 것을, 미국은 약자의 반물만을 노리는 「마키아벨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용·성특위장 강성보군 구속

14일, 성남에서 가두시위중 연행돼

「용·성총련 산하 5공비리척결 및 관주학살문제 5적자단을 위한 애국학생 특별위원회의」 불간 강성보군(홍남·소아외과4)이 지난 9월 15일(목)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원판결으로 구속되었다.

강성보군은 지난 14일(수) 오전 11시 30분 성남시 북정동 사거리에서 공동체위원회 주최 시위를 뿌린 후 단속경찰과 만나

대우호를 의지하며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안병만교수 저술 「한국선거론」영문발간

한국정치학회가 성립한 87년 대 최우수저자 「한국선거론」이 3년공통저자 안병만 단국대 안병만교수(행정학과)와 영문어대 최우수 교수의 공동저술로

진리·평화·창조

2,000年代를 이끌어갈 -가다-

24,000여 동문들은 5대양 6대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계를 통하는 제정임은, 명문 종합대학교입니다.

학 부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열여섯 대학입니다.

24 개 학과에 분야별 인턴, 사회봉사, 해외봉사 등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 족문제와 특수수업등을 통한 모든 학생이 2개 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세 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어 국·공립 사립대 대학원까지 교육 기회를 열어 학부교육을 통해 최고의 인재로 키워줍니다.

- 전문학부
 - 영어·불어·독일어·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프랑스어·스페인어
 - 과·중국어·한국어·영어·경제·경영·인도네시아어·일본어·대만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말레이어·필리핀어·인도네시아어·대만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말레이어·필리핀어
- 석사학부
 - 정치학·사회학·언어학·경제학·교육학·행정학·신앙문화학·법학·문학·경영학·경제학·경영학·경영학·경영학
- 석사학부
 - 영어교육학·국어교육학·독일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
- 석사학부
 - 수학·물리학·화학·전차·계산학
- 석사학부
 - 대한민국·대한민국·통일연구원·교육대학원·경영정보대학원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 시대의 아픔, 양심수와 그의 가족들

양심수 가족운동의 현실과 전망

조 무 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7. 머리말

8월 6일 10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특별한 인종의 학살과 더불어 호헌을 요구하셨던 5공화국으로부터 6.29를 경회하였다.

그러나, 양심수 가족들은 6.29선언을 환영할 수가 없었다. 권위주의의 원충을 하거나 나쁜 노태우가 발표했던 6.29는 분명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사담은 모두 석방하겠다고 말했지만, 기민적인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속양심수의 석방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양심수의 숫자가 체제상황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미터이며, 1천여 양심수가 이중민족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 민족의 의지를 비록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속양심수의 석방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양심수의 숫자가 체제상황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미터이며, 1천여 양심수가 이중민족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 민족의 의지를 비록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속양심수의 석방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양심수의 숫자가 체제상황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미터이며, 1천여 양심수가 이중민족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 민족의 의지를 비록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속양심수의 석방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양심수의 숫자가 체제상황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미터이며, 1천여 양심수가 이중민족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 민족의 의지를 비록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속양심수의 석방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양심수의 숫자가 체제상황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미터이며, 1천여 양심수가 이중민족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 민족의 의지를 비록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속양심수의 석방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양심수의 숫자가 체제상황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미터이며, 1천여 양심수가 이중민족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 민족의 의지를 비록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속양심수의 석방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양심수의 숫자가 체제상황을 드러내 보이는 바로미터이며, 1천여 양심수가 이중민족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 민족의 의지를 비록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6.29선언이 현실되어 인종주의가 수그러드는 틈을 타서, 많은 민주인사가 체포되어 7월 8일 3백20명이 석방되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자행된 [7.8 석방조치]는 바로 노태우의 6.29선언이 국민기만술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었다.

방문자가 제도권내에 수렴되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분기기를 틈타 정경창립추진단은 언론에 「석방할 양심수는 없다」는 입장을 서슴치 않았고, 이어 석방이 지연되었다. 6월30일 45명이 석방되었지만 6월 6일 단담을 「특별법」이 아닌 이니 아니니, 가능한 불거를 하나하나 「허술했고,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경찰청으로, 민정당

적시와 다른단체의 결의를 의지해 다시 한번 결집해 낸 것이 8월 6일 일련의 시 개회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인간권리 선언서」가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양심수들의 애환과 투쟁 시가 한 노래에 응징한 1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가짜이러서 자신의 가족의 석방을 위해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의 석방투쟁에 함께 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주주의를 폭로함으로써 민주화

그리고 9월 1일을 기해 「전국교도소 민주화운동추진위원회」 산하 구속양심수들은 서울출입국을 반대, 예후, 민주

한월 6일 1천여명의 양심수가 옥고를 치르고 있다. 구두유학

민간모두의 아픔이요 분노인 것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접하게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구속양심수이며 그

대인, 대구, 전주, 광주교도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38년의 감옥생활을 하고도

이러한 양심수 가족들은 자식의 석방이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투옥되는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조 7천억원, 160억달러) 이

이러한 체면도 자본주의 없는

그러므로 양심수 가족들은 자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민정당 주최로 열린 양심수 가족들의 모임. 앞줄은 양심수 가족들, 뒷줄은 민정당 관계자들이다.

구속양심수의 전원석방은 범국민적 석방의지 고양, 민중들의 각성과 요구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어

사로 함의 · 규탄하여 현정권의 반민주주의를 폭로하는 어머니들의 석방운동에 막대한 정교요인으로 작용했다.

분명한 것은 여 · 야간의 대

이러한 양심수 가족들은 자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만여 학생 · 시민 · 노동자들은

이러한 양심수 가족들은 자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음에도 영향을 하지 않았다고

이러한 양심수 가족들은 자

이제 선방운동이 아니라, 국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독재와



자, 우리도 손을 잡아라지

돌아오는 여행길은 공허할 뿐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여행의 즐거움 떠나서만 돌아오는 길은 공허할 뿐입니다. 모든 여행은 나에게로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여행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 3,300원

이정도 못 따드립니다!

명상 739-2520, 738-7799

(주)시사영어어학원

현대 시사영어어학원 외국어

대학생 상인용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IME, TOEFL, AFKON, Word Power, Vocabulary, I.C. 4種 綜合 英文, 英文活用, 英文文法, 英文會話, 英文會話(日語), 英文會話(中國語), 英文會話(英語)

개강 10월 4일 수요일

과교대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어학원 서우 (273) 4395~7 / 5081~2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습편성

- 동시·비동시 12명정원
- 일대일 학습관리
- TES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 담당
- 수업료 52만

Placement Test매월 20일 부터 (1시, 2시, 3시) 3회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시사영어학원의 자부심!

TOEFL VOCABULARY LISTENING GRAMMAR READING TIME 영어회화 STREAMLINE 일본어·독일어 TOEFL600(종합반)

시내에는 수많은 외국어학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가장 중요한 외국어 감각인 의사소통의 자부심이 있는 학원이라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사영어학원은 경쟁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쟁을 견뎌오려는 이유는 그만큼 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강: 10월 4일

종로2가 종각대문

時事英語學院

상담대표전화 734-2442

산적한 과제 남기고 끝난 학민

구체적 사업제시와 다양한 봉사준비로 참여 높아

재단부채상환, 고시연구실, 장학금등 근본문제 미해결

지난 9월 7일(수)부터 일주일동안 진행되었던 서울캠퍼스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원민주화추진위) 14일(수) 학생대표와 학교측이 36개항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학원민주화추진위 측에서 이를 두고 구체적인 해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는 이번 학원민주화추진위 17일(토)부터 개막된 올림픽등 단발성사업으로 일회적 구제책이 정립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이르면 합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내시'에서 지체했던 근본적인 해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의 가능성 부분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시연구실, 내국어교과과 학원민주화추진위 중 문제점을 지적, 제정된 학원민주화추진위 17일(토)부터 개막된 올림픽등 단발성사업으로 일회적 구제책이 정립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이르면 합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내시'에서 지체했던 근본적인 해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의 가능성 부분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조항도 통일전선의 확장 정도의 합의에 머무르고있다는 데 이는 수익사업체의 신장과 이를 통한 부채해결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둘째, 폐기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장학금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단지 고시연구실로 지급된 2천 4백만원, 재단지출금 3천만원 등 일임부분의 장학금과 기부금으로 장학금의 지급과 같이 등록금에서의 장학금 확보를 계속 줄여줄 경우(87년 1%, 88년 10%) 장학금의 감소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셋째, 고시연구실의 등록금에 대한 조항도 학원민주화추진위 17일(토)부터 개막된 올림픽등 단발성사업으로 일회적 구제책이 정립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이르면 합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내시'에서 지체했던 근본적인 해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의 가능성 부분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준비와 시간부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의도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원민주화추진위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키고 학생들의 복지문제에만 국한시켜 문제제기를 했다는 지적을 소극적부담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투쟁으로 얻어진 것만으로도 학원민주화추진위에 지극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신실확실한 보완책과 일임부분의 기부금에 대한 방향은 제반사항들의 개선은 비록 부족하지만 상당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활동의 개선은 이임후임의 수업기부금 등 일임부분의 투쟁으로 36개항의 합의사항을 얻어낸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약속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립인 수임된 것만으로도 이임후임이든 '내시'든 '중흥회'든 불합리한 대립으로 굳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총선 건준위」결성식 열려 통일조직 건설·분교정책 철폐결의



「제2총선 건준위」결성식 열려

「제2총선 건준위」결성식 열려
「제2총선 건준위」결성식 열려
「제2총선 건준위」결성식 열려

통일조직 건설·분교정책 철폐결의
통일조직 건설·분교정책 철폐결의
통일조직 건설·분교정책 철폐결의

서울·용인 총학생회 분리 의미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반전반핵행사 성황리에 마쳐

명진님 강연·노래공연·사진전등

명진님 강연·노래공연·사진전등
명진님 강연·노래공연·사진전등
명진님 강연·노래공연·사진전등

용인, 「모의공동올림픽」폐막

용인, 「모의공동올림픽」폐막
용인, 「모의공동올림픽」폐막
용인, 「모의공동올림픽」폐막

총동문회 81명에게 장학금지급

총동문회 81명에게 장학금지급
총동문회 81명에게 장학금지급
총동문회 81명에게 장학금지급

FAIDS비상

FAIDS비상
FAIDS비상
FAIDS비상

지나 9월15일(토) 수석식 거행

지나 9월15일(토) 수석식 거행
지나 9월15일(토) 수석식 거행
지나 9월15일(토) 수석식 거행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외대 총학생회장은 2명

영화상영 안내

영화상영 안내
영화상영 안내
영화상영 안내

용인캠퍼스

용인캠퍼스
용인캠퍼스
용인캠퍼스

외대 발전을 위한 합의서

지난 9월6일(화) 학원민주화 선포장을 시작으로 열렸던 서울캠퍼스 학원민주화사업이 학생들의 36개 요구사항을 학교측이 14일(수) 모두 받아들여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에 본란(欄)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학교측과 합의서 사항인 「외대발전을 위한 합의서」 전문을 게재한다.

1. 동원제 방안
 - 1) 세속적 양은 그간비특유제가 해제될 경우 일년내에 폐지할 것이며 세속적 양이 폐지될 경우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 3학년도의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 3학년도의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4)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2. 교문, 운동장 및 농구장당
 - 1) 설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교문, 운동장을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2) 운동장 잔디는 건설을 완료한 후 즉시 조성할 것이며, (공사시기는 5월에 준할)
 - 3) 좁은 캠퍼스 면적을 고려해, 농구장 당 주위를 스텝트화하여 농구장당 20여 개를 조성할 것이다.
3. 장학금
 - 1) 8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4. 경영합리화
 - 1) 경영합리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반적인 검토가 현재 실시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영정책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인원의 증감도 구체화 될 것이다. (이와관련된 운영의 보고서가 완료되는 10월중부터 위의 기해 착수)
 - 2) 외대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생산성향상의 조사결과와 외대장·단기 발전계획 특별위원회와 결과를 토대로 학생대표와 협의하여 99년까지 완성할 것이다.
 - 3) 도서관
 - 1) 연수원문제: 이를 제 2도서관 하는 것은 학생들도 배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재정부담에 비해 공간확보부분이 왜소하고 연수원이 주는 대외홍보나지는 외대의 이미지에 향상의 이점을 과시하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수원의 제 2도서관화는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무역회관과 관계기관 등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다. (일부학생의 이의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
 - 2) 연수원문제: 이를 제 2도서관 하는 것은 학생들도 배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재정부담에 비해 공간확보부분이 왜소하고 연수원이 주는 대외홍보나지는 외대의 이미지에 향상의 이점을 과시하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수원의 제 2도서관화는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무역회관과 관계기관 등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다. (일부학생의 이의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

5. 도서관
 - 1) 연수원문제: 이를 제 2도서관 하는 것은 학생들도 배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재정부담에 비해 공간확보부분이 왜소하고 연수원이 주는 대외홍보나지는 외대의 이미지에 향상의 이점을 과시하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수원의 제 2도서관화는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무역회관과 관계기관 등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다. (일부학생의 이의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
 - 2) 연수원문제: 이를 제 2도서관 하는 것은 학생들도 배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재정부담에 비해 공간확보부분이 왜소하고 연수원이 주는 대외홍보나지는 외대의 이미지에 향상의 이점을 과시하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수원의 제 2도서관화는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무역회관과 관계기관 등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다. (일부학생의 이의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

6. 사단도 라이브리리
 - 1)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4)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5)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6)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7)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8)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9)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0)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1)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2)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3)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4)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5)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6)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7)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8)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19)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0)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1)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2)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3)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4)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5)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6)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7)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8)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29)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0)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1)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2)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3)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4)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5)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 36) 89년 1학기부터 공간확보할 것이다.

7. 보건실확충 및 의료보장
 - 1) 보건실 확충을 위해 학교 지정병원으로 되어있고 학생들의 의료비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바랍다.
 - 2) 학과 1명을 채용할 것이다.
 - 3) 3학년도의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4)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5)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6)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7)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8)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9)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0)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1)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2)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3)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4)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5)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6)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7)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8)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19)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0)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1)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2)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3)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4)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5)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6)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7)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8)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29)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0)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1)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2)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3)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4)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5)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 36) 4학년도 특강을 계속 하되 4학년도 포함하여 1990년부터 107억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